

이번엔 발포명령자 국민들 앞에 세우자

광주시 '5·18진실규명 지원단' 본격 활동

유력 주자 대선 공약에 반영 추진

광주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일빌딩 탄환 찾기 추가조사를 의뢰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37년 동안 미완에 그쳤던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완의 진실로 남았던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행방불명자(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진실 규명 ▲5·18 역사 왜곡 바로잡기 등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들이 다음 정부에서 최초 발포 명령자 등 80년 5월 광주의 진실 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대선 공약에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 미완의 진실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5·18 진실규명 지원단은 6일 광주시청에서 지원단 개소식 및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가 5·18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차기 대선과 맞물려 숨겨진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현 시장은 개소식에서 "5월단체, 관련 기관들과 손잡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5·18 진실규명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대선 국면에서 모든 후보들이 새 정부의 진상규명 숙제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에는 언론인 출신 나익갑 자문관과 감정영 단장(행정5급) 등 총 4명이 배치돼 진실규명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광주시는 지원단 출범과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5·18 진실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릴 계획이다.

‘미완의 5·18’ 4대 과제

- ▲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
- ▲ 헬기 기총소사 조사
- ▲ 행방불명자·암매장
- ▲ 5·18 역사왜곡 바로잡기



광주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5·18 진실 규명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미완의 해결 과제로 남았던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헬기 기총소사 확인과 당시 400여명의 행방불명자(광주시는 81명만 인정) 및 암매장지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는 전일빌딩을 대상으로 80년 당시 탄환과 탄흔을 더 찾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추가조사 의뢰는 지난 1월12일 국과수의 '총탄흔적 감정보고서'에서 전일빌딩 10층 내부 '옛 전일방송실 천정 공간'에 탄환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가 공중정지(호버링) 상태에서 한곳에 집중 발사된 것'으로 국과수가 추정하고 있어 탄환이 발견될 경우 당시 사용 총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또 총격을 목격한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전일빌딩 1차 건물과 2차 건물 뒤쪽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국과수와 협의해 병행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정월대보름(11일)을 앞두고 6일 밤 광주시 북구 원삼각마을 주차장에서 마을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한해의 액운이 달아나기를 바라며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업들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했나

/긴급점검/ 1조 투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❶ 불투명한 사업자 공모

미래에셋 컨소시엄(미래에셋)과의 여수 경도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 다른 기업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했는지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륙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면서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 콘도, 그 외 부지 등을 조성원가에 매각한 것도 최근 관광도시로 부상한 여수의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수에서 배편으로 10분 남짓이면 도착하는 경도에 골프장, 골프빌라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에 결정적 변수인 연륙교 등 행정·재정적 지원 언급 없이 매각 금액 저평가 논란도

준공된 것은 지난 2014년 6월이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섬에 골프장이 들어서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5년 매출 188억원, 수익 58억원을 거두는 등 2년 만에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지난해 초 감사원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주의를 주면서 '경도 매각'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당시 전남도와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주먹구구식' 계획을 수립해 민간업체가 받을 수 없는 행정적 혜택, 지방채라는 쉬운 자금 조달을 통해 민간영역인 골프장, 콘도 등의 사업에 진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 심사 결과 여수 경도가 탈락하면서 전남개발공사는 중국 자본을 찾아나섰다. 지난해 4월 13일 양지문 사장 등이 직접 중국을 찾아 기업들을 실사하고 귀국했지만, 이후 8월 9일 전남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곳은 미래에셋이었다.

당시 아남연 전남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한 3개 국제컨소시엄 가운데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투자 신뢰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 전남개발공사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공고 내용만을 공개하고, 제안서 제출기일, 제안서 복사본, 심사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모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미래에셋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사 관계자는 "중국 자본 2곳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사를 표명해온 미래에셋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합리조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대기업 20여 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제안공모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원을 조건으로 했는데, 중국 자본 2곳에서 이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래에셋과 협의 통해 계약서 일부 공개하겠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이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체결한 여수 경도관광단지 투자협약 계약서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 문제가 제기<광주일보 6일자 1면>되자 전남도가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본보 지면에 이어 전남도의회도 6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미래에셋 간 경도해양

관광단지 투자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 협약은 2029년까지 미래에셋이 경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와 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체결됐다.

전남도의회는 투자 담보 조건, 불이행 시 조치 등 계약 당사자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명시됐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협약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공개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계약서상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계약 파기는 물론 공개 당사자가 상당액의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계약서는 외부에 이미 공개한 큰 틀의 합의사항과 관련한 세부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사실이 불필요한 오해

로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정 부분 공개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 3. 28(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 문예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농지은행·농지연금

똑똑한 농지관리 전문가 fb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fb



2030세대 농지지원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년, 1~2%) 농지 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연금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촉사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 비촉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확대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금이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 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kf 한국농어촌공사
정부는 30년의 성장
37년의 혁신
37년의 전통